

[종합]

전남 친환경농자재 최대 시장

작년 생산업체 101곳, 3년새 2.5배... 年 매출 500억 도, 친환경 농업 육성따라 외지 업체도 속속 이전

전남도내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면적을 늘리면서,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도 급증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지난 2004년에 39곳에 불과했던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가 2007년 말에는 101곳으로 3년새 258%(62곳)나 급증했다.

이에 힘입어 해당 업체들의 인력도 2004년 214명에서 2007년 500여명 두배 가깝게 늘었고, 연간 매출도 2004년 187억 원에서 2007년 5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2005-2009)을 수립,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 농자재 최대 소비처로 부각되면서 전남도 내 업체들의 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업체들의 공장 이전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6년 경기도 소재 왕우림이 생산업체가 나주시 왕곡면에 13억원

을 들여 '나주 왕우림이 농장'을 설립했고,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에 본사를 둔 (주)건농이 무안군 삼향면에 100억원을 투자해 토양 미생물제제, 사료용 생균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충남도 소재 기업인 '남도 농산'은 지난해 4월부터 30억원을 투자해 강진군 작천면에 혼합유박,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을 완공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20~3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지원과 '생산제품 우선 검증' 등을 통해 우수 제품을 생산토록 유도하고 농업인에게 도내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수도권 소재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구 소재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 계획이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이 전국 최대의 친환경 농자재 시장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관련 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플라워 쇼’ 25일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열린 ‘플라워 쇼’(Flower Show)에서 참석자들이 화분을 고르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21세기 남도 특새화훼 연구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쇼는 27일까지 계속된다. <전남도 제공>

전남 ‘행복마을’ 출발부터 뼈격

적정 분양가 위한 예산지원 싸고 장성군과 이견

전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사업’이 제 1호 사업자인 장성 행복마을의 적정 분양가 유지를 위한 예산지원을 놓고 시작부터 뼈격거리고 있다.

24일 전남개발공사와 장성군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와 장성군에 따르면 전남 제1호 행복마을인 ‘장성 황룡행복마을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12번6천398㎡(3만8760평) 부지에 행복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25~30평 규모의 한옥 100가구를 지어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장성군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기로 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시설설계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적정분양가 유지를 위한 기반사업비 예산지원을 둘러싸고 전남도와 장성군 사이에 이견이 심각하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8일 장성군과의 간담회에서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산에 상당히 초과한 만큼 장성군측에 10억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장성군의 거부해 사업 추진이 진통을 겪고 있다.

장성군은 마을도로 건설(90억원)과 가로등 설치(7억원), 하수도(7억원), 상수도(5억원), 마을회관(5억

원) 등에 순수 군비가 집중 투입돼 재정 여건상 10억원의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예산지원에 난항을 겪으면서 행복마을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행복마을 부지의 적정분양가는 3.3㎡(평)당 50만원 이하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100~120만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건축비를 포함하면 한옥 1채당 가격이 최소 3억원에 호가해 실제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성군은 이 때문에 전남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 본격 상륙

5월부터 과자 등 전분 제품 원료로 수입

이르면 5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전분과 전분당 제품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옥수수를 원료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분과 물엿·과당·포도당 등 전분으로 만든 당류를 통칭하는 전분당은 과자와 음료수, 빙과류 제조와 요리 등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어 식품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한국전분당협회 등에 따르면 대상, CPK(옛 두산CPK), 삼양제ACK

스, CJ 계열의 신동방CP 등 협회 소속사 4곳은 최근 전분·전분당 원료용으로 GMO 옥수수 5만여톤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로 했다.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은 이들 4개사가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는 협회 차원의 공동구매를 통해 일년에 170만~200만톤씩 수입하고 있다.

우주정거장서 ‘김치파티’

한국인 우주인 고산씨 4월 한국식 만찬 준비 세계화에 기여 할 듯

오는 4월12일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김치파티가 열린다.

24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최초 우주인이 될 고산씨는 국내에서 개발된 우주김치를 문화교류에 이용할 생각이라면서 우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한 지 47주년이 되는 올해 4월12일 ISS에서 한국식 만찬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주김치는” 국내 연구기관이 방사선 멸균 기술과 식품공학 기술 등을 접목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우주식품 가운데 하나로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장기 저장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베트남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린든 존슨 미 대통령에게 특별히 부탁해 주일장병에게 김치를 제공했을 정도로 한국인들과 떼를 수 없는 관계인 김치가 이제 우주정복을 눈앞에 뒀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정부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우주김치 개발에 수백만달러가 투자됐으며 라면과 수저와 등 다른 우주식품과 함께 러시아 국립과학센터 산하 생의학연구소로부터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여러 우주식품 가운데 우주김치 개발이 가장 어려웠다는 연구진의 말을 전하면서 연구진이 김치 고유의 맛을 유지하면서 방사선을 이용해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했으며 김치 특유의 냄새도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빛의만평

- 김중두

표구해서 매일 들여다 보기로...

새 도로명 주소 표기 전남도 조례 제정

전남도가 새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 도가 관리·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25일 “지난해 4월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으로 주소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새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남도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고 시장·군수로부터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위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해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김병관 前 동아일보 회장 별세

식도암 투병... 28일 영결식

동아일보 사장, 회장, 명예회장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지낸 화정(化汀) 김병관 선생이 25일 오전 9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2006년 고려대 안암병원에 식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오던 중 지난해 12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1934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

은 중앙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1985년 동아일보 부사장으로 승진해 1987년 발행인을 맡은데 이어 1989년 사장, 1993년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33년간 신문 경영의 일선에서 민선 언론 창달에 이바지해왔다. 한국신문협회 회장, 한국디지털교육재단 이사장, 일민문화재단 이사장 등도 역임했다. 고인은 199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2001년 일본 와세다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

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8일 오전 9시 고려대내 화장처 육관에서 화장된다.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선영.

유족으로는 장남인 김재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 차남 김재열 제일모직 상무, 김희령 일민미술관 실장 등 2남1녀가 있다. 02-921-2899, 3099(고려대 안암병원), 02-2020-1710(동아일보사) /연합뉴스

결산공고

24시간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先 報日誌 報日誌 報日誌

전화 : (직)062-227-9600
FAX : 062-227-9500
E-mail : design@kwangju.co.kr
dd8111@hanmail.net

분실

골프회원증
No. J01500268
광주C.C
나병찬
상기 회원증(大小) 분실공고함.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2008년 2월 11일 제11회 주주총회에서 허가회사 합병을 하고 ‘강’은 ‘달’의 관리부 일체를 승계하며 ‘달’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의 일부에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바래야 모래 달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비와 이에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6일
‘강’ 주식회사 광주제일 보형대리점
광주시 북구 중흥동 704-9번지 삼신빌딩 9층
대표이사 서정숙

‘달’ 주식회사 광주제일 보형대리점
광주시 북구 중흥동 704-9번지 삼신빌딩 6층
대표이사 김대령

산행안내

2월 27일(수)

- ▲ 광주기초산악회 원년 기념 2월 28일(목) 은진산(수) 7시 10분 출발(전남) 해미대 7시30분, 광주역 8시, 근교인 상류 호텔(전남) : 광주기초산악회
- ▲ 광주기초산악회 원년 기념 2월 28일(목) 은진산(수) 7시 10분 출발(전남) 해미대 7시30분, 광주역 8시, 근교인 상류 호텔(전남) : 광주기초산악회

2월 28일(목)

- ▲ 광주기초산악회 원년 기념 2월 28일(목) 은진산(수) 7시 10분 출발(전남) 해미대 7시30분, 광주역 8시, 근교인 상류 호텔(전남) : 광주기초산악회
- ▲ 광주기초산악회 원년 기념 2월 28일(목) 은진산(수) 7시 10분 출발(전남) 해미대 7시30분, 광주역 8시, 근교인 상류 호텔(전남) : 광주기초산악회

3월 1일(토)

- ▲ 광주기초산악회 원년 기념 2월 28일(목) 은진산(수) 7시 10분 출발(전남) 해미대 7시30분, 광주역 8시, 근교인 상류 호텔(전남) : 광주기초산악회
- ▲ 광주기초산악회 원년 기념 2월 28일(목) 은진산(수) 7시 10분 출발(전남) 해미대 7시30분, 광주역 8시, 근교인 상류 호텔(전남) : 광주기초산악회

3월 2일(일)

- ▲ 광주기초산악회 원년 기념 2월 28일(목) 은진산(수) 7시 10분 출발(전남) 해미대 7시30분, 광주역 8시, 근교인 상류 호텔(전남) : 광주기초산악회
- ▲ 광주기초산악회 원년 기념 2월 28일(목) 은진산(수) 7시 10분 출발(전남) 해미대 7시30분, 광주역 8시, 근교인 상류 호텔(전남) : 광주기초산악회

전통 침·뜸 공개강좌

- 의료개방 및 의료법 개정 대비 침구인 양성과정
- 중국 추나침구사·피부 미용사·안마사 자격취득

주요 과목

체침(전통침), 뜸, 부항, 경혈, 경락, 이침, 특침, 피부관리, 비만침법, 미용침법, 두침, 수지침, 약침, 침구관리, 한방기초 등

광주분원 공개강좌 및 설명회

- 일 시 :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 위 치 : 광주시 동구 학동 649-45번지 3층 (현충시립병원 2번출구에서 직진 5-00주유소 옆 건물)
- 본강의 : 매주(목) 오후 2시 ~ 6시 (총 16주완성)
- 월회비 : 86,000원 (교재포함)
- 참가자격 : 나이, 학력, 경력 제한 없음

1544-5359 / 236-3516

www.wchina.co.kr

E-Supporter 어학원

http://www.e-supporter.co.kr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타어학원에 비해 **가격 최저! 효과 최고!**

E-Supporter가 연수비용

영어공부하기 좋은 이유?

1. 기숙사 통합 관리 시스템
2. 개인별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
3. 100%의 영어사용환경을 유지
4. 세미스파르타식 어학원

과정	2인실	1인실
2개월	150	160
3개월	215	230
4개월	285	305
5개월	345	370
6개월	399	429

필리핀 어학연수의 무한공감!!

E-Supporter에서 선착순 30분씩 연수비용 파격적 할인!

비내내 포함 내역 (항공요금 및 교재비 별도)

- 비자 연장 및 ssp 발급, - 미발급 공항 픽업,
- 청소 발레 식사 등의 각종 편의 제공, - 각 레벨에 따른 수료증 발급

학원건물, 휴게실, 학원입구, 도서관

상담문의 062) 264-0882, 010-2255-0459